

‘곡성형 3S 스마트 맵 안전돌봄’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지원

총 6000만원 투입 취약계층 노인가구 돌봄 체계 구축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 공동체추진단에서 시행한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지원 공모사업에 ‘곡성형 3S(Smart, Security, Speed) 스마트 맵 안전 돌봄’이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읍면 안전협의체

를 구성 및 운영하고 지역 맞춤형 안전 관리 사업을 통한 읍면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곡성군을 비롯해 전국 66개(전남 9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곡성군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원 받은 국비 3000만 원을 포함, 총 6000만 원을 통해 취약계층 노인이

구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질 계획이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곡성군 읍면 안전협의체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119생활안전순찰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드림복지방장(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인터넷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카카오톡 맵 등)에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여 스마트 안전 돌봄 맵을 제작 및 활용, 읍면 민관안전협의체가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취약계층 노인가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사업은 지역공동체(읍면 안전협의체)와 스마트 기술(스마트 안전 돌봄맵)이 결합하여 취약계층 노인가구와 같은 복지사각지대의 안전을 똑똑하고 빠르게 확보하는 사업이다”며 “곡성군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스마트 복지 안전 모델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곡성=홍경백 기자

김순호 구례군수,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김순호 구례군수가 전남도에서 열리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시장·군수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14일 구례군에 따르면 챌린지는 대축전 경기가 배정된 시군에서 진행되며, 전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대회의 붐업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전남 20개 시군 57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이중 구례군에서는 26일부터 27



일까지 이틀간 구례 실내체육관에서

400여 명의 15개 시도 선수단과 임원이 참가하는 씨름 경기가 치러질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전국 생활체육인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2025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다음 챌린지를 이어갈 단체장으로 강진군수와 고흥군수를 지목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정인화 광양시장, 4월 ‘현장 소통의 날’ 주요 사업장 점검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 등 3개소 방문



광양시는 4월 중 제1차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해 주요 사업장 3곳을 점검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솔밭섬 내 ‘태풍 루사 극복 기념관’, 어린이 안전체험관 건립사업 현장, 그리고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차레로 방문하며 각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첫 방문지인 솔밭섬 내 ‘태풍 루사 극복 기념관’에서는 집중호우 시 침수 예방과 시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배수 개선 및 무인카페 설치를 지시했다. 또한, 솔밭섬의 종합적인 녹

지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어 어린이 안전체험관 건립사업 현장에서는 기존 시설에 교통안전과 안전교육 체험장을 추가하고 노후 시설을 보수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안전 체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증설, 배수로 개선 등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임을 확인하고, 답수와 방만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정 시장은 “현장에서 문제를 직접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통해 현안 사업을 면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광양=조순의 기자

신안, 다이아몬드 해역 바다낚시터 조성 가속화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일환… 쥐노래미 10만 마리 방류

신안군은 15일 이아몬드 해역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일환으로 쥐노래미 1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쥐노래미는 전장 5cm 이상이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염병 검사를 마친 건강하고 활력이 좋은 종자로, 해당 지선 어촌계(어업인)와 함께 산상 방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방류해역은 22년부터 5년간 50억 원(연간 10억)이 투입되고 있는 쥐노래미 산란·서식장을 조성 중인 해역으로, 지금까지 어조(563개) 투하와 해조류(곰파, 다시마 등)를 집중 어식해 놓은 해역인 만큼, 그어는 꽤보다도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근 해역 하의 옥도와



안좌 사치해역에도 23년부터 5년간 40억 원(연간 8억)을 투입, 조피볼락 산란·서식장을 조성하는 등 다이아몬드 해역 내 수산자원 회복·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25년도 사업(사업비 18억 원)이 본격

실시될 것”이라면서 “신안군의 중심 해역인 이곳에 어조 투하, 해조류 어식, 종자방류 등 최적의 수산생물들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한 만큼, 향후 바다낚시의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정경옥 기자

목포시립도서관, 3년 연속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 선정

목포아동원 초등학생 대상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목포시립도서관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에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선정되며, 3년 연속 운영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는 정보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책과 도서관을 매개로 한 다양한 독서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자발적인 독서 습관 형성을 돕는 독서 진흥 프로그램이다.

목포시립도서관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목포아동원을 대상으로 총 15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작가와의 만남, 책 읽어주기, 창의적 독후활동, 도서관 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동들의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앞서 2023년과 2024년에는 목포

시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본 사업을 성실히 운영해 참여자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낸 바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이 책과 도서관에 더욱 친숙해지고, 독서의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목포=김근호 기자

화순 추천 여행코스 솟품 영상 공모전

내 손으로 만드는 콘텐츠… 오는 18일부터 접수

화순군은 14일 화순의 매력을 담은 창의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SNS를 통한 효과적인 관광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나만의 픽! 전남 화순 추천 여행코스 솟품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 있는 ‘솟품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특히, 30초에서 1분 이내의 짧고 감각적인 영상을 통해 화순의 대표 여행지를 매력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번 공모전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화

순 여행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화순으로 떠나고 싶어지는 추천 여행 영상’으로 장르에 개의치 않고 화순의 다양한 관광지를 매력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참가자는 제작한 영상을 본인의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계정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한 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총 300만 원의 상금이 걸린 이번 공모전은 심사를 통해 총 13편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대상(1편) 100만 원 ▲최우수상(2편) 각 50만 원 ▲우수상(3편) 각 20만 원 ▲장려상(8편) 각 5만 원(현금 또는 경품)이다.

/화순=주용현 기자

해남, 친환경 농산물 물류비 지원

5톤 이상 차량 1대당 20만원, 최대 20회

해남군은 2025년 친환경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친환경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유통시 차량 운송비를 지원해 주게 된다.

지원 대상은 해남군 내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생산·유통하며, 5톤 이상 차량을 통해 광주·전남권을 제외한 소비지로 출하하는 단체, 작목반, 법인이다. 다만 친환경 인증 농산물 중 짧은 제외되며, 개인 신청

은 받지 않는다.

5톤 이상 차량 1대당 20만원, 최대 20회 지원하게 된다.

매월 주조식 읍면사무소 또는 유통지원과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서류 검토 후 바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 제안으로 추진되고 전액 군비로 지원되는 친환경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강진, 귀농인 맞춤 ‘살고 싶은 농촌’ 지원

최대 1500만원 지원… 영농기반 마련 등 원스톱서비스

강진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영농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농 정착 보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진군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업 창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와 장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영농 초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2025년 사업비는 총 2억 2400만원으로, 이 중 군비 50%와 자부담 50%가 매칭되는 구조다. 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인은 개소당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비닐하우스 ▲축사 ▲저온저장고 ▲농업용 창고 ▲농기계 및 모작 구입 등이며, 총 7개소 내외의 귀농인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창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 이수 실적, 영농기반,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보조금 교부 후에는 보충보험 가입 및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진=김경선 기자

담양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내달 30일까지 접수생활 속 불편 규제 개선 나서

담양군은 군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 담양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안전·복지 향상, ▲일상생활 불편 해소, ▲취업·일자리 창출 및 기업활동 애로사항, ▲신산업·지역경제 활성화와 저해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한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주

민, 소상공인, 기업 등)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7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다.

참여 희망자는 담양군청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해 전자우편(e-mail), 네이버 폼 또는 우편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사해 ▲최우수상 1명(50만 원), ▲우수상 2명(각 30만 원), ▲장려상 4명(각 20만 원)을 선정한다.

/담양=조승채 기자

무안,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비 숙박업 간담회

무안군은 최근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대비해 숙박업 영업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관내 숙박업 영업주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위생적이고 친절한 숙박업소 만들기 등 협조 사항을 전달하고, 숙박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많은 방문객이 오는 이번 대축전에 숙박업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원활한 객실공급, 적정 가격

준수,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다짐했고, 생활체육대축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산 군수는 “이번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무안군과 숙박업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모두가 힘을 모아 다시 찾고 싶은 무안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안=김상훈 기자